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刺鍼의 補助手技法* - 『內經』 註釋, 鍼灸書籍, 『醫學入門』의 비교 -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趙學俊^{1**}

Complementary Acupuncture Techniques in 『Yihapjinsaron of Somun(素問·離合眞邪論)』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Jo Hak-jun^{1**}

Objective : I tried to turn out the fact that acupuncture treatment was originated from the sentences in 『Yihapjinsaron of Somun(素問·離合眞邪論)』

Method : I analyze the sentences in 『Yihapjinsaron of Somun(素問·離合眞邪論)』 by comparing the ponies on it and acupuncture books, Yi Ceon(李梴)'s 『Medical beginner's book(醫學入門)』.

Conclusion : Making this research, I discovered Du Taesa(竇太師) primarily called it '14 finger strengthening-eliminating treatment methods(手指補瀉法)' in his book, 『Acupuncture Guidance(鍼灸指南)』 and he made full use of it in acupuncture clinic.

Seo Bong(徐鳳) & Go Mu(高武) cited the 14 methods in their works, 『Acupuncture Completement(鍼灸大全)』 & 『Acupuncture Essence(鍼灸節要聚英)』, but they did not state their own views that this 14 methods ware derived from 『Somun(素問)』.

Conclusion : I knew great acupuncture specialists and Yi Ceon(李梴) finally regarded the sentences in 『Somun(素問)』 as basic & complementary acupuncture techniques of 『Acupuncture Guidance(鍼灸指南)』 in their works. They hoped to let many acupuncture clinicians use the finger strengthening-eliminating treatment methods more often.

Key words : 『Somun(素問)·Lihapjinsaron(離合眞邪論)』, finger strengthening-eliminating treatment method (手指補瀉法), complementary acupuncture techniques(補助手技法), basic acupuncture techniques(基本手技法)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 수행되었음 (RIC-07-06-01).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로 117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43-649-1347. E-mail : johohun@kornet.net
접수일(2011년 10월 7일), 수정일(2011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2일)

I. 序 論

刺鍼의 방법은 基本手技法과 補助手技法으로 구성되었으며, 基本補瀉手技法과 綜合補瀉手技法으로 발전되었다.¹⁾

이때 ‘補助手技法’이란, 오른손으로는 鍼을 잡고 밀어 넣는데 반해, 왼손으로는 鍼身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보조하는 手技法을 말한다.²⁾

‘補助手技法’의 근거는 『素問·離合眞邪論』³⁾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에 대해, 『內經』의 歷代 注釋家들은 이 문장이 刺鍼의 어느 기술인지 밝히기보다는 단순히 글자와 문구만을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근래에 李梴의 『醫學入門·鍼灸篇』에서 刺鍼에 왼손이 중요하다는⁴⁾ 글을 읽다가,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를 인용하는 동시에, 『素問·離合眞邪論』의 구절 외에 ‘動而伸之’와 ‘搖而出之’의 두 구절을 첨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醫學入門』의 해당내용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竇太師의 『鍼灸指南』, 徐鳳의 『鍼灸大全·標幽賦』, 高武의 『鍼灸節要聚英』과 汪機의 『鍼灸問對』 등과 비교하여 知見을 얻었다.

현재까지 刺鍼의 手技法에 대한 문헌 및 실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문헌연구 方面에서 신명호⁵⁾는 『素問·離合眞邪論』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였고, 박쾌환⁶⁾, 김선희⁷⁾, 金경호⁸⁾ 등은 基本의인 補瀉手技法에 관해 논하였고, 이재동⁹⁾, 박희수¹⁰⁾ 등은 종합

적인 補瀉手技法에 관해 논하였고, 윤종화¹¹⁾는 補瀉手技法을 2층, 3층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고, 조민수¹²⁾는 補瀉手技法외에 補助手技法까지 論하였다.

실험연구 方面에서 박찬규¹³⁾는 迎隨補瀉와 圓方補瀉手技法의 효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송범용¹⁴⁾은 左,右捻轉手技를 행한 침자극과 穴位의 온도변화의 상관성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素問·離合眞邪論’의 해당 내용이 補法에 屬하지 않음’을 명확히 지적하거나 鍼灸學說의 補助手技法과 비교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補助手技法이 鍼灸臨床에 응용되는 기회가 적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이에 刺鍼의 補助手技法의 淵源을 찾기 위해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가 왼손을 사용하는 補助手技法에 속함을 밝히고, 아울러 補助手技法의 技術, 效能, 단계에 대하여 『內經』의 歷代 注釋을 여러 鍼灸書籍 및 『醫學入門』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 論

刺鍼의 補助手技法의 淵源을 찾기 위해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의 문장을 각 구절로 구분하고, 『內經』의 여러 注釋書와 『鍼灸指南』, 『鍼灸大全·標幽賦』, 『鍼灸節要聚英』, 『鍼灸問對』 등의 鍼灸書籍과 『醫學入門』의 내용을 서로 비교한다.

- 1)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404.
- 2)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p.406-407.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4. “帝曰不足者補之奈何? 岐伯曰必先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 抓而下之, 通而取之, 外引其門, 以閉其神. 呼盡內鍼, 靜以久留, 以氣之爲故, 如待所貴, 不知日暮, 其氣以至, 適而自護. 候吸引鍼, 氣不得出, 各在其處, 推闔其門, 令神氣存, 大氣留止, 故命曰補.”
- 4)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540.
- 5) 신명호. 『素問·離合眞邪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5.
- 6) 朴快煥. 鍼灸術의 補瀉手技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전 대학교논문집. 6(2). 1987. pp.335-344.
- 7) 김선희, 김갑성. 基本補瀉手技法의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 11(1). 1994. pp.309-325.
- 8) 金경호, 윤정화, 김갑성, 이종형. 金針賦 手技補瀉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2(2). 1993. pp.205-240.

- 9) 이재동, 박동석, 남상수. 基本補瀉手技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8(2). 2001. pp.186-199.
- 10) 박희수, 김경식. 綜合補瀉手技法中 行氣 四法의 文獻的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2). 1992. pp.97-106.
- 11) 윤종화, 김경호. 手技補瀉法의 중 분층구분보사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1(1). 1994. pp.373-390.
- 12)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p.404-421.
- 13) 나창수, 박찬규, 장경선, 소철호. 영수보사와 원방보사수기법의 정량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7(1). 2000. pp. 43-54.
- 14) 송범용, 손인철, 김경식. 좌, 우염전수기(左, 右捻轉手技)를 행한 침자극이 상응혈위(相應穴位)의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6(1). 1999.

1. 문지르거나 주위를 훑음(捫而循之)

【『內經』 註釋】

‘捫’과 ‘循’에 대해 王氷¹⁵⁾, 張景岳¹⁶⁾, 張志聰¹⁷⁾, 高世栻¹⁸⁾ 등은 두 가지 法으로 나누지도 않았고 왼손 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馬蒔¹⁹⁾는 刺鍼 前에 사용하는 前手法임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또한 『黃帝內經素問白話解』에서 刺鍼 前에 손으로 穴位를 확정하는 방법이라고²⁰⁾ 설명하였다. 이는 補助手法 중 前手法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鍼灸書籍】

‘捫’은 『鍼經指南』과 『鍼灸節要聚英』에서 補法을 사용한 때에 손으로 그 穴位를 문지르고 막는 것이라고²¹⁾²²⁾ 하였고, ‘循’은 刺鍼한 곳의 부분이나 經絡을 손으로 위아래로 문질러서 氣血이 行하게 하는 것이라고²³⁾²⁴⁾ 하였다.

- 15) 王氷 註.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해석. 黃帝內經素問 王氷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524. “捫循謂手摸, 捫而循之, 欲氣舒緩.”
- 16)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先以手捫摸其處, 欲令血氣溫舒也.”
- 17)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先以手捫循其處, 欲令血氣循行也. 蓋邪之所湊其氣必虛, 故又當補其真氣之不足.”
- 18) 高士宗.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p.208. “必先以手捫而循之, 得其穴道之眞.”
- 19)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未用鍼之時, 必先捫而循之, 謂以指捫循其穴, 使氣之舒緩也.”
- 20)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익산. 庸齋朴奭教授華甲紀念編輯委員會 編. 2001. p.207.에서 재인용 “施用鍼法以前, 必須用手循經確定穴位”
- 21)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捫: 捫者, 凡補時, 用手捫閉其穴, 是也.”
- 22)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捫者, 凡補者出針時, 用手捫閉其穴也.”
- 23)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循: 循者, 凡下針於屬部分經絡之處, 用手上下循之, 使氣血往來而已是也. 經云: 推之則行, 引之則止.”
- 24)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循者, 凡下針於部分經絡之處, 用手上下循之, 使氣血往來.”

『鍼灸大全·標幽賦』에서 ‘捫’은 『鍼經指南』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²⁵⁾ ‘循’은 刺鍼 後 사용하는 手法이라고²⁶⁾ 하였다.

『鍼灸問對』는 앞의 鍼灸書籍과는 달리 王氷 註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²⁷⁾.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捫’과 ‘循’은 모두 補助手法 중 後手法에 해당하되, ‘捫’은 刺鍼한 穴位를 막아서 補함을 돕는 방법이고, ‘循’은 穴位의 上下를 눌러서 氣血이 잘 運行하도록 돕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

李梴은 ‘捫’이란 刺鍼 後에 痛症이 제거되지 않거든 그곳을 문질러서 痛症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며, 또는 刺鍼 前에 손으로 그 穴位를 누르는 것도 ‘捫’이라고 한다고²⁸⁾ 하였다.

또한 ‘循’이란 刺鍼한 부위에 손으로 經絡을 따라서 上下로 눌러서 氣가 잘 往來하도록 한다고²⁹⁾ 하였으니 補助手法 중 後手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李梴은 鍼灸書籍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 하였지만, 특히 ‘捫’은 刺鍼 後의 後手法에 해당하는 동시에 補助手法 중 前手法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끊듯이 훑음(切而散之)

【『內經』 註釋】

‘切’에 대해 王氷³⁰⁾, 馬蒔³¹⁾, 張景岳³²⁾, 張隱庵³³⁾

- 25)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捫者, 出針之後, 以手捫閉其穴, 使氣不泄也.”
- 26)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循者, 用針之後, 以手上下循之, 使血氣往來也.”
- 27)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捫循謂手摸, 欲氣舒緩.”
- 28)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1. “捫者, 摩也. 如痛處未除, 卽於痛處捫摩, 使痛散也, 復以飛針. 引之, 除其痛也. 又起針之時, 以手按其穴, 亦曰: 捫.”
- 29)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1. “循者, 用手於所針部分, 隨經絡上下循按之, 使氣往來, 推之則行 引之則至 是也.”
- 30) 王氷 註.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해석. 黃帝內經素問

등은 모두 손가락으로 穴位를 눌러서 經脈의 氣가 흘러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왼손 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散’은 補助手技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切法의 效能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鍼灸書籍】

‘切’은 『鍼經指南』, 『鍼灸大全·標幽賦』, 『鍼灸節要聚英』에서 모두 刺鍼 前에 엄지손톱으로 穴位의 左右를 눌러서 氣血이 흘러지도록 하여 刺鍼할 때에 營衛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³⁴⁾³⁵⁾³⁶⁾ 하였다.

여기에서 刺鍼 前의 前手技法에 속하되 특히 엄지손톱을 사용하여 穴位의 左右를 누른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鍼灸問對』에서 ‘切’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經脈의 氣가 흘러지게 하는 것이라고³⁷⁾ 하였는데, 이는 王氷 註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

‘切’이란 李梴은 손톱으로 刺鍼하려는 穴位의 上下 左右의 四方을 눌러서 氣血이 흘러지도록 하는 것이라고³⁸⁾ 하였다.

이로써 ‘切’은 補助手技法 중 前手技法에 속하며, 어느 손가락을 사용하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손톱을 사용하여 穴位의 左右뿐만 아니라 上下를 누른다고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밀면서 누름(推而按之)과 움직여서 펴 (動而伸之)

【『內經』註釋】

‘按’의 技術에 대해 王氷, 馬蒔는 皮膚를 밀어서 주름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라고³⁹⁾⁴⁰⁾ 하였고, 張景岳, 張隱庵은 皮膚를 주무르는 것이라고⁴¹⁾⁴²⁾ 하였다.

‘按’의 效能에 대해 張景岳, 張隱庵은 刺鍼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⁴³⁾⁴⁴⁾, 高世栻은 손가락으로 穴位를 집어서 刺鍼할 때에 鍼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⁴⁵⁾ 하였다.

이로써 ‘按’은 ‘切’은 刺鍼 前의 前手技法에 속하며, 어느 손가락을 사용하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推’는 補助手技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按法을 시행하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醫學入門』에서는 『素問·離合眞邪論』의 ‘推而按之’에 대한 對句로 ‘動而伸之’의 문구를 추가 삽입하였기에 『內經』註釋에서 動法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

王氷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524. “切謂指按也, 切而散之, 使經脈宣散.”

- 31)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切而散之, 謂以指切捺按其穴, 使氣之布散也.”
- 32)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次以指切捺其穴, 欲其氣之行散也.”
- 33)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次以指切捺其穴, 欲其氣之行散也.”
- 34)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切: 切者, 凡欲下針, 必先用大指甲左右於穴切之, 令氣血宣散, 然後下針, 是不傷榮衛故也.”
- 35)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言欲下針之時, 必先以左手大指甲於穴上切之, 則令其氣散, 以右手持針, 輕輕徐入, 此乃不痛之因也.”
- 36)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切者, 凡下針必先用大指甲左右於穴切之, 令氣血宣散, 然後下針, 是不使傷於榮衛也.”
- 37)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切謂指按, 使經脈宣散.”

- 38)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0. “切者, 以手爪掐按其所針之穴上下四傍, 令氣血散.”
- 39) 王氷 註. 윤장열, 이남구, 김선호 현도해석. 黃帝內經素問王氷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524. “推而按之, 排蹙其皮也.”
- 40)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推而按之, 謂其指推其穴, 即排蹙其皮也.”
- 41)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以指揉按其肌膚”
- 42)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以指揉按其肌膚”
- 43)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欲鍼道之流利也”
- 44)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欲鍼道之流利也”
- 45) 高士宗.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p.208. “推而按之, 分擘其穴, 不使傾移.”

【鍼灸書籍】

‘按’은 『鍼經指南』, 『鍼灸節要聚英』에서 손으로 鍼을 비틀어서 마치 鍼을 짝 누르는 모양으로 더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⁴⁶⁾⁴⁷⁾ 하였고, 『鍼灸大全·標幽賦』에서 왼손을 사용하여 氣가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⁴⁸⁾ 鍼이 콩알만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⁴⁹⁾ 하였고, 『鍼灸問對』에서 ‘推按’은 피부를 밀어서 穴位을 막는 것이라고⁵⁰⁾ 하였다.

‘動’은 『鍼經指南』, 『鍼灸節要聚英』에서 만약 刺鍼 시에 氣가 行하지 않으면 鍼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⁵¹⁾⁵²⁾ 하였다.

특히 『鍼灸問對』와 『鍼灸節要聚英』에서 ‘推而按之’는 刺鍼 후에 왼손으로 鍼孔을 막는 補法을 말하고 ‘動而伸之’는 刺鍼 후에 왼손으로 鍼孔을 여는 瀉法을 말한다고⁵³⁾⁵⁴⁾ 하였다.

한편 ‘按’과 ‘動’은 『鍼經指南』, 『鍼灸節要聚英』에서는 刺鍼 時의 本手技法으로 간주하였고, 『鍼灸問對』, 『鍼灸節要聚英』에서는 補助手法 중 後手技法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

李梴은 ‘推’란 밀면서 돌리는 것이고⁵⁵⁾, ‘動’이란 鍼을 돌려서 움직이는 것이니⁵⁶⁾, 즉 ‘推’와 ‘動’이란 補瀉할 때에 陰陽을 나누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法이라고⁵⁷⁾ 하였다.

또한 ‘按’이란 鍼을 더 밀어 넣는 것[插]이고⁵⁸⁾, ‘伸’이란 鍼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것[提]이니⁵⁹⁾, 즉 ‘按’이란 補瀉할 때 天部에서 人部, 地部로 鍼을 더 밀어 넣는 插法을 말하고⁶⁰⁾ ‘伸’이란 補瀉할 때 地部에서 人部, 天部로 鍼을 조금 들어 올리는 提法을 말한다고⁶¹⁾ 하였다.

이로써 李梴은 ‘推’, ‘動’ 및 ‘按’, ‘伸’은 補助手法 중 刺鍼 時의 本手技法으로 간주하였으되, 단 ‘伸’, ‘按’은 각각 ‘提’, ‘插’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뿔기고 성나게 함(彈而怒之)

【『內經』 註釋】

‘彈’과 ‘怒’에 대해 王氷⁶²⁾, 馬蒔⁶³⁾, 張景岳⁶⁴⁾, 張隱庵⁶⁵⁾ 모두 두 가지 法으로 나누지 않고 脈氣가 부풀고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馬蒔는

46)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按: 按者, 以手撚針無得進退, 如按切之狀, 是也.”
47)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按者, 以手按針, 無得進退, 如按切之狀.”
48)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左手重而多按, 欲令氣散.”
49)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沉重豆許任按, 輕浮豆許曰提.”
50)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推按謂排蹙其皮以閉穴.”
51)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動: 動者, 如氣不行, 將針伸提而已.”
52)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動者, 如氣不行, 將針伸提而已.”
53)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因推針而內之, 是謂補, 動針而伸之, 是謂瀉, 古人補寫心法, 不出乎此.”
54)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補者 隨經脈推而內之, 左手閉針孔, 徐出針而疾按之. 瀉者, 迎經脈動而伸之, 左手開針孔, 疾出針而徐按之.”

55)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推者, 推轉也.”
56)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動者, 轉動也.”
57)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所謂推動, 卽分陰陽左轉右轉之法也.”
58)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按者, 插也.”
59)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伸者, 提也.”
60)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2. “插者, 自天部插 至人部地部.”
61)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2. “提者, 自地部提 至人部天部.”
62) 王氷 註.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해석. 黃帝內經素問王氷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524. “彈而怒之, 使脈氣臏滿也.”
63)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彈而怒之, …… 使之脈氣臏滿也.”
64)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以指彈其穴, 欲其意有所注則氣必隨之, 故 脈絡臏滿如怒起也.”
65)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以指彈其穴, 欲其意有所注則氣必隨之, 故 脈絡臏滿如怒起也.”

손가락으로 여러 번 튕겨서 환자로 하여금 성나게 하는 것이라고⁶⁶⁾하여 구체적인 手法를 밝혔다.

【鍼灸書籍】

‘彈’이란 『鍼經指南』, 『鍼灸節要聚英』에서 補할 때에 엄지손톱으로 가볍게 鍼을 튕겨서 氣가 빨리 행하도록 하거나와 만약 瀉法이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⁶⁷⁾⁶⁸⁾하였고, 『鍼灸大全·標幽賦』에서는 虛를 補할 때 사용한다고⁶⁹⁾ 하였다.

그러나 ‘怒’에 대해서는 『鍼經指南』, 『鍼灸節要聚英』, 『鍼灸大全·標幽賦』에서 별다른 설명이 있지 않다.

『鍼灸問對』에서 ‘彈’과 ‘怒’를 두 가지 法으로 구분하지 않고 脈氣가 가득하게 하거나⁷⁰⁾ 고동치고 웅솟음치게 하는 것으로서⁷¹⁾, 엄지로 中指를 잡았다가 中指로 하여금 그 穴位를 두드리거나 또는 검지로 중지와 겹쳐서 식지로 하여금 그 鍼을 놓은 곳을 튕기는 것이라고⁷²⁾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彈’을 대체로 補助手法 중 本手法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

李梴은 ‘彈’이란 補法으로서 엄지와 검지의 손톱을 서로 겹쳐서 병이 위에 있으면 엄지손톱으로 가볍게 위로 튕기고 病이 아래에 있으면 검지로 가볍게 아래로 튕기니 氣가 빨리 行하게 하면 氣가 쉽게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⁷³⁾ 하였다. 이로써 李梴은 ‘彈’을 補助手技

法 중 本手法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李梴은 ‘努’란 엄지와 검지로 鍼을 비트는 것으로 잇달아 3번 비비니, 마치 손이 힘차게 떨리는 것과 같기에 ‘飛’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補하려면 鍼을 조금 넣을 때에 飛法을 사용하니 환자로 하여금 들숨을 한 번 참아서 힘을 들였을 때 사용하며, 瀉하려면 鍼을 조금 들어 올릴 때에 飛法을 사용하니 환자로 하여금 날숨을 쉬게 하여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⁷⁴⁾ 하였다. 이로써 李梴은 ‘努’를 本手法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彈法은 補法에만 사용하는데 반해 努法은 補와 瀉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氣가 저절로 이른 경우에는 彈法이나 努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⁷⁵⁾ 하였다.

5. 손톱으로 눌러서 침을 놓음(抓而下之)

【『內經』註釋】

‘抓(爪)’에 대해서 王冰은 鍼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⁷⁶⁾ 하고, 馬蒔, 張景岳, 張隱庵는 왼손의 손톱으로 그 穴位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刺入하는 것이라고⁷⁷⁾⁷⁸⁾⁷⁹⁾ 하였고, 高世栻은 더 刺入하여 그 鍼을 더 깊게 놓는 것이라고⁸⁰⁾ 하였다.

이로써 ‘抓(爪)’는 대체로 前手技法으로 간주되, 高世栻은 本手法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66)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5. “彈而怒之, 謂以指屢屢彈之, 使病者覺有怒意.”
67)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彈: 彈者, 凡補時, 可用大指甲輕彈針, 使氣疾行也. 如瀉, 不可用也.”
68)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彈者, 凡補時, 可用大指甲輕彈針, 使氣疾行也. 如瀉, 不可用也.”
69)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彈則補虛”
70)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彈怒 使脈氣滿”
71)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彈而怒之, 鼓勇之也.”
72)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或以拇指拉其中指, 令中指搏擊其穴. 或以食指交於中指, 令食指彈其針處也.”
73)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彈者, 補也, 以大指與次指爪相

交而疊. 病在上, 大指爪輕彈向上, 病在下, 次指輕彈向下, 使氣速行, 則氣易至也.”
74)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努者, 以大指次指撚針, 連搓三下, 如手顫之壯, 謂之飛. 補者, 入針飛之, 令患人閉氣一口, 著力努之. 瀉者, 提針飛之, 令患人呼之, 不必著力.”
75)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一法二用, 氣自至者, 不必用此彈努.”
76)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541. “抓而下之, 置鍼準也.”
77)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6. “抓而下之, 謂以左手之爪甲掐其正穴 而右手方下鍼也.”
78)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用法如前 然後, 以左手爪甲掐其正穴 而右手方下鍼也.”
79)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206. “用法如前 然後, 以左手爪甲掐其正穴 而右手方下鍼也.”
80) 高士宗.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p.208. “引而下之, 以深其鍼.”

‘下’는 補助手法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抓(爪) 法을 시행하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鍼灸書籍】

『鍼經指南』, 『鍼灸節要聚英』에서 ‘爪’란 刺鍼할 때에 손가락으로 힘들여 鍼을 똑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81)82) 하여 爪法의 技術을 설명하였다.

『鍼灸問對』에서 ‘爪而下之’란 손가락으로 조금 세게 누르는 것으로 모두 氣가 이르게 하고자 함이라고 83) 하였으니 爪法의 效能을 설명하였다.

『鍼灸大全·標幽賦』에서 ‘爪下’란 손가락으로 穴位의 주변을 눌러서[切] 刺鍼하는 것이라고 84) 하였으니, 爪法은 곧 切法이라고 간주하였다.

【醫學入門】

李梴은 ‘爪’란 刺鍼 전에 먼저 엄지로 穴位를 세게 누르는 것이니 氣血로 하여금 흠어지게 하고자 함이라고 85) 하였다. 이로써 李梴은 ‘爪’를 補助手法 중 前手法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기운이 통하게 하고 취함(通而取之)

【『內經』 註釋】

‘通而取之’에 대해 王冰은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86) 하였고, 高士宗은 그 經脈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87) 하였다. 또한 馬蒔, 張隱庵은 막 刺鍼한

때에 氣가 이르는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88)89) 하였고, 張景岳은 刺鍼 後에 氣가 통하기를 기다려서 그 질병을 취하는 것이라고 90) 하였다.

【鍼灸書籍】

‘通而取之’에 대해 『鍼灸問對』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이니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세히 살펴서 기가 이미 조화로우면 삼가서 그대로 지키지 다시 바꾸지 않아서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91) 하였다. 이는 王冰과 高世栻의 설명을 따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鍼經指南』, 『鍼灸大全·標幽賦』, 『鍼灸節要聚英』에는 별다른 언급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手法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

李梴은 ‘通’이란 그 기운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 提插한 뒤에 사용한다고 92)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왼손, 陽經인 경우, 醫師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9數로 전진하고 나서 鍼頭를 눕혀서 補法을 띄고 엄지로 힘을 주어 鍼 끝이 病處로 향하게 하도록 하다가 환자가 熱感을 느끼면 그만둔다고 93)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고도 氣가 또 통하지 않으면 靑龍擺尾法, 白虎搖頭法, 蒼龜探穴法, 赤鳳迎源法 등의 飛經接氣法을 더 運用하니 94), 이런 방법들은 모두

- 81) 竇大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爪: 爪者, 凡下針用 手指作力置針, 有準也.”
- 82)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爪者, 凡下 針用 手指作力置針, 有準也.”
- 83)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爪而下之, 掐之稍重, 皆欲致其氣之至也.”
- 84)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爪下者, 切而下針也.”
- 85)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0. “爪者, 先以左手大指爪重掐穴上, 亦令氣血散耳.”
- 86) 王冰 註,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해석. 黃帝內經素問 王冰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524. “通而取之, 以常法也.”
- 87) 高士宗.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p.208. “通而取之, 以調其經.”

- 88)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 國風出版社. 1986. p.206. “鍼始入矣, 必通而取之, 謂如 用下文全法, 以取其氣也.”
- 89)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 台北. 台聯 國風出版社. 1986. p.206. “下鍼之後, 必令氣通, 以取其氣.”
- 90)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下鍼 之後, 必候氣通, 以取其疾.”
- 91)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通而取之, 以常法也, 適平調也. 審視氣已平調, 則慎守勿更改, 使疾更生也.”
- 92)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p.543-544. “通者, 通其氣也, 提插之後, 用之.”
- 93)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4. “如病人左手陽經, 以醫者右手大指 進前九數, 却扳倒針頭, 帶補以大指努力, 針嚮病處, 或上或下, 或左或右, 執住直待病人覺熱方停. 若氣又不通者, 以靑龍龜鳳飛經接氣之法驅而運之.”
- 94)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4. “如病人左手陽經, 以醫者右手大指 進前九數, 却扳倒針頭, 帶補以大指努力, 針嚮病處,

先賢들이 『內經』의 通氣를 추리, 연역한 法이라고⁹⁵⁾ 하였다.

李梴이 설명한 ‘通法’은 즉 補助手法 中 本手法의 ‘搓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取’란 왼쪽의 통증에는 오른쪽을 取하고 오른쪽의 통증에는 왼쪽을 取하며, 손의 통증에는 발을 取하고 발의 통증에는 머리를 取하고 머리의 통증에는 손을 取하는 것으로서, 머리의 통증은 手足三陽經을 取하고 胸腹의 통증은 手足三陰經을 取하니, 즉 병들지 않은 곳을 刺鍼하는 곳으로 삼고 병든 곳을 效험이 나타나는 곳으로 삼는다고⁹⁶⁾ 하였다.

李梴이 설명한 ‘取法’은 즉 補助手法에 해당하지는 않고 刺鍼하는 穴位를 선택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李梴은 별도로 ‘鬪氣’와 ‘接氣’를 열거하고 있는데⁹⁷⁾, 특히 ‘接氣’란 接經補瀉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⁸⁾.

또한 李梴은 ‘攝法’에 대해서 엄지손톱으로 經脈을 따라서 上下를 눌러서 그 氣가 저절로 通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⁹⁹⁾ 하였다.

或上或下, 或左或右, 執住直待病人覺熱方停. 若氣又不通者, 以龍虎龜鳳飛經接氣之法驅而運之.”

95)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4. “若氣又不通者, 以龍虎龜鳳飛經接氣之法驅而運之. …… 此皆先正推衍《內經》通氣之法”

96)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4. “取者, 左取右, 右取左, 手取足, 足取頭. 頭取手足三陽, 胸腹取手足三陰, 以不病者爲主, 病者爲應.”

97)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4. “先鬪氣, 接氣而後取氣, 手補足瀉, 足補手瀉, 如搓索然.”

98)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4. “通氣接氣之法, 已有定息寸數. 手足三陽, 上九而下十四, 過經四寸, 手足三陰, 上七而下十二, 過經五寸. 在乎出納, 呼吸同法, 上下通接, 立時見功. 所謂定息寸數者, 手三陰. 從胸走手, 長三尺五寸, 左右共長二丈一尺, 手三陽從手走頭, 長五尺, 左右共長, 三丈, 足三陽從頭走足, 長八尺, 左右共長四丈八尺, 足三陰從足走腹, 長六尺五寸, 左右共長三丈九尺, 陰陽兩躡從足走目, 長七尺五寸, 左右共長一丈五尺, 督脈長四尺五寸, 任脈長四尺五寸, 諸脈共長一十六丈二尺也. 行血氣, 通陰陽以榮於身, 絡脈則傳注而不息也.”

99)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5. “攝者, 用大指甲隨經絡上下切之, 其氣自得通行.”

7. 흔들어 나오게 함(搖而出之)

‘搖而出之’의 구절은 『素問·離合眞邪論』에는 없고 『醫學入門』에 있기에, 추가로 鍼灸書籍과 그 내용을 比較하고자 한다.

【鍼灸書籍】

『鍼經指南』, 『鍼灸大全·標幽賦』, 『鍼灸節要聚英』에서 ‘搖’란 瀉法을 사용한 뒤에 鍼을 뽑을 때에 반드시 鍼을 흔들어서 뽑는 것이라고¹⁰⁰⁾¹⁰¹⁾¹⁰²⁾ 하였고, 『鍼灸問對』에서 鍼을 뽑으려 할 때에 반드시 열고 흔들어서 뽑는 것이라고¹⁰³⁾ 하였다. 이로써 ‘搖’는 刺鍼 後의 後手法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

李梴은 ‘搖’란 물러나는 것이니 두 손가락으로 鍼尾를 잡고 상하좌우로 각각 5~7번 흔들고 2~7번 鍼을 살짝 들어 올리니 능히 여러 風病을 흠는다고¹⁰⁴⁾ 하였다. 이로써 ‘搖’는 補助手法 中 後手法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出’이란 鍼을 완전히 뽑는 것이니 침을 놓은 곳이 약간 헐거워지기를 기다리고 나서 콩알만큼의 깊이 남아있는 鍼을 뽑을 수 있으며¹⁰⁵⁾ 鍼을 뽑는 순서는 통증이 없는 곳의 鍼(應鍼)을 먼저 뽑고 나서 통증이 있는 곳의 鍼(主鍼)을 나중에 뽑는다고¹⁰⁶⁾ 하였다.

100) 寶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搖: 搖者, 凡瀉時, 欲出針, 必須動搖而出者 是也.”

101)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搖者, 凡瀉時, 欲出針, 必須動搖而出者 是也.”

102)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搖者, 凡瀉時, 欲出針, 必須動搖而出者 是也.”

103)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凡退針出穴之時, 必須擺撼而出之.”

104)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5. “搖者, 退也. 以兩指拿針尾, 向上下左右 各搖振五七下, 提二七下, 能散諸風.”

105)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5. “出針, 直待微鬆, 方可出針豆許.”

106)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5. “搖出應針, 次出主針.”

李梴은 이외에 刺鍼 後에 刮法, 搜法, 盤法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刮法, 搜法, 盤法을 補助手法 中 後手法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刮法, 搜法, 盤法을 더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刮法’이란 엄지손톱으로 鍼尾부터 鍼腰까지 긁는 것을 말하니, 능히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픈 통증을 제거하고 수년 된 풍증을 흘는다고¹⁰⁷⁾ 하였다. 특히, 午前에는 鍼尾로부터 鍼腰에 이르는 방향으로 긁고, 午後에는 鍼腰로부터 鍼尾에 이르는 방향으로 긁으며, 病이 위에 있으면 위를 향하게 긁고 병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를 향하게 긁는다고¹⁰⁸⁾ 하였다.

‘搜法’이란 刮法의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몇 차례를 사용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으며, ‘橫搜’와 ‘直搜’가 있다. ‘橫搜’는 龍虎交騰法에 한번은 왼쪽으로 한번은 오른쪽으로 探穴하되 단지 편한 손을 사용하며, ‘直搜’는 한번은 위로 한번은 아래로 探穴하니 撻法과 비슷하여 돌리지 않는다고¹⁰⁹⁾ 하였다.

‘盤法’이란 搜法의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왼쪽으로 9번 돌리고 오른쪽으로 6번 돌리는 것이라고¹¹⁰⁾ 하였다.

III. 總括 및 考察

『醫學入門』에서 “아아! 神鍼이 上古로부터 비롯되어 옛날 岐白의 때에도 이미 그 失傳됨을 한탄하였거늘 하물며 후세는 말할 것도 없다.”¹¹¹⁾고 하고, 또 이어서

107)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4. “將大指爪從針尾, 刮至針腰, 此刮法也. 能移不忍痛, 可散積年風.”

108)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4. “午後又從針腰刮至針尾. 又云: 病在上, 刮向上, 病在下, 刮向下.”

109)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5. “次用搜法, 不論數. 橫搜, 如龍虎交騰, 一左一右, 但手更快耳. 直搜, 一上一下, 如撻法而不轉, 瀉刮同前.”

110)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5. “次用盤法, 左轉九次, 右轉六次, 瀉刮同前.”

111)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5. “嗟, 夫神針肇自上古, 在昔岐伯已嘆失其傳矣, 況後世乎!”

“竇太師와 徐鳳이 그 남은 글을 인하여 그 意義를 연구하여 後學들이 깨닫게 하여 그 대강을 알게 하노라.”¹¹²⁾라고 하였다.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에 대해, 『內經』의 歷代 注釋家들은 대부분 刺鍼의 어느 기술인지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단순히 글자와 문구만을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고, 최근의 『素問·離合眞邪論』에 대한 연구¹¹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의를 잃어버렸다.

刺鍼의 방법은 基本手法과 補助手法으로 구성되며, 基本補瀉手法과 綜合補瀉手法으로 발전되었다.¹¹⁴⁾

이때 ‘補助手法’이란, 오른손으로는 鍼을 잡고 밀어 넣는데 반해, 왼손으로는 鍼身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보조하는 手法을 말하는 것이다.¹¹⁵⁾

補助手法은 그 단계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鍼을 施術하기 전까지를 ‘前手法’, 刺鍼 후부터 拔針하기 전까지를 ‘本手法’, 拔針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拔針할 때까지를 ‘後手法’이라고¹¹⁶⁾ 부른다.

補助手法은 그 명칭, 技術과 效能 등을 살펴보면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에서 근원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전부터 여러 鍼灸家들은 ‘手指補瀉法’이라고 불려왔다.

다만 그 중에 ‘散’, ‘下’, ‘通’, ‘取’ 등은 補助手法 이라기보다는 補助手法의 의의를 설명한 단어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所謂 ‘手指補瀉法’이란 竇太師가 『鍼灸指南』에서 처음 사용한 명칭으로서 刺鍼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응용하는 補助(手)技法¹¹⁷⁾에 해당한다. 특히

112)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범인 문화사. 2009. p.545. “尚賴竇徐二氏, 能因遺文以究其意, 俾來學有所悟, 而識其梗槩.”

113) 신명호. 『素問·離合眞邪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14)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404.

115)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p.406-407.

116)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p.406-407.

표 1.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前·本·後 3단계의 구분을 비교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動**)	彈而怒之		抓而下之	(搖)
	捫	循	切	推*	按(挿)		彈	怒[努]	爪	
『內經』註釋	前		***	前		·	?		前,本	·
『鍼經指南』	後	後	前	"		本	本	·	"	後
『鍼灸大全』	"	"	"	"		"	"	·	"	"
『鍼灸聚英』	"	"	"	"		"	"	·	"	"
『鍼灸問對』	"	"	"	後		後	本		"	"
『醫學入門』	後,前	"	"	本	本	本	本	本	"	"
조민수	後	前	"	"	前	"	前,本	"	"	"

() 속의 補助手技法은 『素問·離合眞邪論』에는 없고 『醫學入門』에 의해 보충한 것이다.

편의상 前手技法은 ‘前’으로 本手技法은 ‘本’으로 後手技法은 ‘後’로 略稱한다.

*‘推法’은 조민수의 연구와 비교하면 進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動法’은 조민수의 연구와 비교하면 提法 또는 退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는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動, 搖, 進, 退, 搓, 盤, 彈, 撚, 循, 捫, 攝, 按, 爪, 切 등¹¹⁸⁾ 鍼을 運用하는 14가지 法¹¹⁹⁾으로서 주로 왼쪽 손가락을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鍼灸節要聚英』에서 14法 중 進, 退, 動, 搖, 彈, 捫, 攝, 循, 切, 按, 爪의 11法은 『素問』의 鍼法이지만 搓, 撚의 두 가지 法은 『素問』의 鍼法이 아니라고¹²⁰⁾ 하였는데, 그 중에서 ‘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醫學入門』의 ‘手指補瀉法’은 切, 爪, 彈, 努, 捫, 循, 推, 動, 按(挿), 伸(提), 通, 取, 攝, 刮, 搜, 盤, 搖(退), 出 등의 18가지이며, 이 중 『素問·離合眞邪論』에 해당되는 것은 捫, 循, 切, 推, 按(挿), 彈, 努, 爪, 通, 取의 10가지이다.

조민수는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는 前手技法에, ‘動而伸之’는 本手技法에 속한다고¹²¹⁾ 하였다. 또 前手技法으로 循, 攝, 按, 彈, 爪, 切法을, 本手技法으로는 彈, 進, 動, 刮, 搓, 飛, 盤, 努(怒), 撚(捻), 提法을, 後手技法으로는 搖, 退, 捫을 들고 있다.¹²²⁾ 여기에서 彈法은 前手技法과

本手技法에 모두 속하며, 飛와 努(怒)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논문에서 『內經』의 歷代註釋書, 鍼灸書籍, 『醫學入門』을 조민수의 연구¹²³⁾와 비교하여 조금 다른 결과를 얻었다.

첫째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前·本·後 3단계의 구분에 대한 비교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둘째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技術에 대한 비교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셋째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效能에 대한 비교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5, 표 6, 표 7과 같다.

IV. 結 論

이상으로 『素問·離合眞邪論』의 ‘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 抓而下之, 通而取之’가 刺鍼의 補助手技法에 屬함을 밝히고, 아울러 補助手技法의 技術, 效能, 단계에 대하여 『內經』의 歷代註釋을 여러 鍼灸書籍 및 『醫學入門』과 비교, 고찰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17) 최용태 외. 針灸學(下). 서울. 集文堂. 1991. p.1093.

118)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9)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540.

120)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所謂進, 退, 動, 搖, 彈, 捫, 攝, 循, 切, 按, 爪皆素問法也. 搓, 撚, 非素問法也.”

121) 조민수.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416.

122) 조민수.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p.406-407.

123)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p.406-407.

표 2.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法法의 技術을 비교

	捫而循之		切而散之	
	捫	循	切	散
『內經』註釋	손가락으로 문지름		손가락으로 누름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鍼經指南』	문질러 막음	上下로 문지름	엄지손톱으로 左右를 누름	
『鍼灸大全』			손가락으로 누름	
『鍼灸聚英』				
『鍼灸問對』	문질러 누름	上下로 누름	上下左右를 누름	
『醫學入門』	당기거나 문지름	上下左右를 어루만짐		

표 3.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法法의 技術을 비교

	推而按之		彈而怒之	
	推	按	彈	怒(努)
『內經』註釋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피부를 밀어 주름을 잡음	손가락으로 튕김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鍼經指南』		鍼을 비뚤		
『鍼灸大全』		더 刺入함(挿)		
『鍼灸聚英』		鍼을 비뚤		
『鍼灸問對』		피부를 밀어 막음		
『醫學入門』	左右로 轉鍼	더 刺入함(挿)	飛法과 동일	
조민수	進法과 유사	上下로 밀어올림	努法, 飛法을 구분	

표 4.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法法의 技術을 비교

	抓而下之		通而取之	
	抓	下	通	取
『內經』註釋	鍼을 바르게 세움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손톱으로 누름			
	더 刺入함			
『鍼經指南』	鍼을 바르게 세움			
『鍼灸大全』	손톱으로 누름			
『鍼灸聚英』	鍼을 바르게 세움			
『鍼灸問對』	손톱으로 누름	搓法과 유사	穴位 선택 기준	
『醫學入門』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조민수				

표 5.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效能을 비교

	捫而循之		切而散之	
	捫	循	切	散
『內經』註釋	氣가 緩和됨		氣가 흠어짐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鍼經指南』	氣가 새지 않음	氣血이 잘 行함	氣血이 흠어짐	
『鍼灸大全』				
『鍼灸聚英』				
『鍼灸問對』			氣가 흠어짐	
『醫學入門』	痛症이 제거됨	氣가 잘 往來함	氣血이 흠어짐 營衛가 안 상함	
조민수	氣가 새지 않음 痛症이 제거됨	氣血이 잘 行함		

표 6.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效能을 비교

	推而按之		彈而怒之	
	推	按	彈	怒(努)
『內經』註釋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刺鍼이 원활함	脈氣가 가득함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鍼經指南』		내용 없음	氣가 빨리 行함	
『鍼灸大全』		氣가 흠어짐	虛를 補함	
『鍼灸聚英』		내용 없음	氣가 빨리 行함	
『鍼灸問對』			脈氣가 가득함	
『醫學入門』	내용 없음	補氣	氣가 빨리 行함 補法으로만 사용	補 또는 瀉
조민수	調氣	氣가 行함		氣가 行함

표 7. 『素問·離合眞邪論』에 나타난 補助手技法의 效能을 비교

	抓而下之		通而取之	
	抓	下	通	取
『內經』註釋	내용 없음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鍼經指南』				
『鍼灸大全』				
『鍼灸聚英』				
『鍼灸問對』				
『醫學入門』	氣血이 흠어짐		搓法과 유사	穴位 선택 기준
조민수	氣血이 흠어짐 痛症이 제거됨		手技法으로 간주하지 않음	

『內經』의 歷代 注釋家 중 馬蒔와 張景岳를 제외하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基本手技法인지 ‘왼손’을 사용하는 補助手技法에 속하는지를 구분하기보다는 단순히 글자와 문구만을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竇太師는 『鍼灸指南』에서 動, 搖, 進, 退, 搓, 盤, 彈, 撚, 循, 捫, 攝, 按, 爪, 切 등을 처음 ‘手指補瀉 14法’이라는 명칭과 함께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臨床에 적극적으로 活用하였다.

그 후로 徐鳳은 『鍼灸大全·標幽賦』에 간략히 그 내용을 인용하였고, 高武의 『鍼灸節要聚英』과 汪機의 『鍼灸問對』에 내용과 함께 설명이 곁들어 있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素問·離合眞邪論』의 해당 내용을 ‘왼손’을 사용하는 ‘補助手法’(다시 前手法, 本手法, 後手法의 3단계로 세분함)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動而伸之’와 ‘搖而出之’의 문구를 첨가하고, 竇太師의 ‘手指補瀉14法’이 『素問·離合眞邪論』에서 淵源했음을 밝혀냈다.

이로써 李梴은 『內經』과 竇太師의 『鍼灸指南』, 徐鳳의 『鍼灸大全』 등을 통해 上古로부터 거의 失傳된 神鍼을 後世에 傳하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先賢들의 마음을 본받아 『素問·離合眞邪論』의 補助手法를 臨床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鍼灸의 治療律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

V. 參考文獻

<論文>

1. 김경호, 윤정화, 김갑성, 이종형. 金針賦 手技補瀉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2(2). 1993. pp.205-240.
2. 김선희, 김갑성. 基本補瀉手法의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1(1). 1994. pp.309-325.
3. 나창수, 박찬규, 장경선, 소철호. 영수보사와 원방보사 수기법의 정량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7(1). 2000. pp.43-54.
4. 박快樂. 鍼施術의 補瀉手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학교논문집. 6(2). 1987. pp.335-344.
5. 박快樂. 鍼施術의 補瀉手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학교논문집. 6(2). 1987. pp.335-344.
6. 박희수, 김경식. 綜合補瀉手法中 行氣 四法의 文獻의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2). 1992. pp.97-106.
7. 송범용, 손인철, 김경식. 좌, 우염전수기(左, 右捻轉手技)를 행한 침자극이 상응혈위(相應穴位)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6(1). 1999.
8. 신명호. 『素問·離合眞邪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9. 윤종화, 김경호. 手技補瀉法의 중 분층구분보사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1(1). 1994. pp.373-390.
10. 이재동, 박동석, 남상수. 基本補瀉手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8(2). 2001. pp. 186-199.
11. 조민수, 안창범. 자침의 제반수기법과 보사법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3(1). 1996. p.404.

<單行本>

1. 高士宗.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7. p.208.
2. 馬元臺,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중국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6. pp.205-206.
3. 李梴 著. 陳柱杓 譯.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p.540-546.
4.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41.
5. 최용태 외. 針灸學(下). 서울. 集文堂. 1991. p.1093.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4.

<기타>

1. 高武 著. 裘沛然 編. 鍼灸節要聚英·中華醫典 CD (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 竇太師 著. 裘沛然 編. 鍼經指南·中華醫典 CD (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3. 徐鳳 著. 裘沛然 編. 針灸大全·中華醫典 CD (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 汪機 著. 裘沛然 編. 鍼灸問對·中華醫典 CD (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